

“전주시정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

박순종 권한대행 부시장, 업무 추진계획 밝혀... “공무원들 선거중립 의무 엄수”

박순종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사람·생태·문화 3대 가치 중심의 시정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뜻을 내비쳤다.

박 권한대행은 2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시정공백을 염려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전

주시 모든 직원들이 각자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정은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권한대행은 △독립영화의 집 건립 △전주역사 전면개선 △전주

교도소 이전사업 △전주 탄소산단 조성 등 올해 국비 확보한 시정 주요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돼도록 준비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또 신규 사업 발굴과 관계부처 건의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힘을 예정이다.

박 권한대행 부시장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의무를 엄수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힘쓸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2,000여 전주 시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맑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경력단절여성 취업인식전환특강

전주시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 취업인식전환교육 전문 특강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고 나섰다.



공사 현장 출입구 왕래하는 대형 차량들 2일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완주군은 이 현장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할 당시 세운장을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출입구 50m 안쪽에 설치돼 있어 세문시설의 설치 의미를 잃고 있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2일 센터 강당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전주시 여성 14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긍정마인드’를 주제로 한 취업인식전환특강을 했다.

특강은 김명륜(필명 황금명륜) 교육연수원 대표가 강사로 초청됐다.

김 대표는 △스트레스 분석을 통한 갈등 다루기 △관계 갈등을 요리하는 소통 △유쾌한 의사소통 훈련 등을 소개하는 등 길어진 경력단절 기간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진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박성숙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장은 “취업인식특강을 통해 여성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취업 그 이상의 더 큰 비전을 세우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학생복지과 신설, 시급한 과제”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

유광찬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사진)는 “우리나라 헌법은 제31조 1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면서 학생복지과 신설을 주장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었다고 하면서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의 해소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그 책무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를 결정되면 ‘4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에 전북교육청에서는 법에 명시된 교육비 지원을 포함하여, 이번 GM 군산사태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 다문화가정과 한부모 가정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등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현재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부서가 각각 달라,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학생복지과를 신설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생복지과 신설을 통하여 4대 교육비 사업 관련뿐만 아니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비 지원, 돌봄교실 사업비 지원을 포함하여, 특수학생에 대한 복지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복지, 실직자 자녀에 대한 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심사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보다 효율적인 학생복지 사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수달·삵·고라니, 전주 도심하천으로 돌아왔다

전주천·삼천 합류점 수달보금자리에서 모습 포착

생태하천으로 탈바꿈된 전주천과 삼천 등 전주 도심하천에 멸종위기 1급 동물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은 물론 삵과 고라니 등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전주천과 삼천에서 서식 중인 수달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산동 전주천·삼천 합류점에 조성한 수달보금자리에 관찰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수달과 삵, 고라니, 오리 등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2일 밝혔다.

독립된 섬 형태와 생태수로 등을 갖춘 수달 보금자리는 지난 해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수달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달 전문가와 생태하천협의회 등 관련 환경·동물 관련 NGO단체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해 조성됐다.

이에 따라 전주천과 삼천 등 전주 도심하천에서 서식하는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곳곳에 은신처를 조성, 전주천과 삼천 상류를 수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보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달 26일 수달보금자리에 설치한 관찰카메라에는 불과 1주일새 수달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2급 동물인 삵과 고라니까지 포착돼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향후 수달보금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 보다 체계적인 수달보호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수달을 보다 체계

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달 보호대책 다울마당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천·삼천 수달 개체수 조사 및 보호대책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김세천 전북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은 지난 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발자국과 분변, 관찰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전주지역 생태하천에 최대 8마리의 수달이 서식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수달 서식 실제 개체수가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규남 기자

‘정읍교육 자원 탐구의 날’ 운영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열)이 최근 전북과학대 제2생활관 앞 정읍사 오솔길에서 2018 정읍교육 자원 탐구의 날’을 운영했다.

관내 15개교(유1, 초10, 중3, 고1) 250여명이 참여한 이날 교육활동은 지역의 자원을 체험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었다.

가까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했던 지

역의 자원을 돌아보며 교직원간 대화와 소통을 위한 계기, 무엇보다 학교를 넘어 마을과 지역으로 향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고민하는 관내 많은 교원이 참여하였다.

정읍사 오솔길에서 월영마을까지 탐방 일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육과정 구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개별 참여교원에게 제공한 뒤 출발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